

李彦英의 家庭經營論과 交遊·學問論

-寒旅學風の 계승과 응용-

김 학 수*

1. 머리말
2. 治家論 : ‘教子論’을 중심으로
3. 師門論 : ‘旅神認識’을 중심으로
4. 交遊論 : ‘畿湖學人’을 중심으로
5. 學問論 : ‘眞知實踐’과 ‘變化氣質論’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李彦英(1568-1639)의 삶의 자취와 인식의 틀을 家庭經營論과 交遊·學問論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다. 嶺南學界에 있어 17세기는 변화의 시대였다. 鄭述(1543-1620)와 張顯光(1554-1637)을 宗師로 하는 寒旅學의 팽창은 종전까지 인동·예안권에서 장악했던 영남학의 주도권이 인동·성주권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고, 江岸[낙동강연안]을 중심으로 ‘實’을 강조했던 이들의 학풍은 嶺南學[退溪學]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나름의 독특한 결을 창출, 확산해나갔다.

그러나 寒旅學의 팽창이 17세기 초반의 ‘嶺南學=寒旅學’이란 등식구조를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 ksoya@aks.ac.kr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식적 구도 설정은 영남학의 내적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도리어 장애가 된다. ‘孔門四科’가 대변하듯 학습 환경의 유사성이 학문의 방향과 갈래의 획일성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이언영은 寒旅門下에서 착실한 가르침을 입었지만 ‘寒旅認識’의 틀이 동료들과 같지 않았고, 정치학문적으로 남인 영남학파로 구분되었지만 그의 교유망은 이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의 삶의 궤적을 細察하며 따라가는 이 글은 政派·學派라는 그 시대의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인물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론의 의미를 갖는다.

◆ 주제어

李彥英, 寒旅學人, 鄭述, 張顯光, 治家論, 教子論, 師門論, 交遊論, 學問論

1. 머리말

17세기 초반 영남학계의 학문적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鄭述(1543-1620)와 張顯光(1554-1637)이었고, 이들은 각기 ‘寒岡學派’와 ‘旅軒學派’를 형성하여 영남의 학문적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켰다. 두 학인의 활동 시기·지역 그리고 학풍적 근접성은 두 학파를 ‘寒旅學派’로 통칭하는 이유가 되었다.

정구와 장현광에 대한 학문적 탐색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 문인들의 학문적 계승양상,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寒旅學風’의 특징에 대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예컨대, 한강학의 계승 양상을 영남이 아닌 근기지역에서 찾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본고는 한려학인의 학자관료적 존재 양상과 한려학풍의 영남적 계승양상을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고, 그 한려 양문의 고제로 인식되는 李彦英(1568-1639)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주의 세족 碧珍李氏 집안에서 성장하여 한려 문하에서 양질의 가르침을 받은 이언영은 문벌과 학벌에 있어 동시대의 사대부에 손색이 없었고, 여기에 발군의 자질이 보태져 문과에 장원함으로써 엘리트 문신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임진왜란에서 정묘·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3차례의 국난을 몸소 체험했고, 癸丑獄事로 대변되는 광해정국의 소용돌이에서는 정치적 시련도 따랐지만 외관상 드러나는 그의 학자관료적 삶의 질은 어느 한려학인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18-19세기 대구의 유학자 崔興璧(1739-1812)은 ‘浣亭遺事’에서 이언영을 ‘官僚[벼슬아치]’로 규정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관료로 기억하고, 또 기록한다. 이 글은 이언영에게 내재된 학자관료적 양면성을 추적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그의 개인적 언행 속에 녹아 있는 한려학풍의 자취를 적출하여 그 의미를 가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언영에 대한 연구가 한리학풍의 영남적 계승 및 응용 양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治家論 : ‘教子論’을 중심으로

1627년(인조5) 정묘호란 이후 생애의 만년에 접어든 이언영은 자신의 문건과 경험을 기록화하게 되는데, 「雲溪閒話」가 바로 그것이다. 「운계한화」는 破閑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아들 교육을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저술이라는 점에서 浣石亭家의 教子 및 治家論의 요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대 여느 집안의 교육론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사대부가의 자제들은 조부 또는 아버지[또는 伯叔父]를 통해 ‘家庭之學’을 계승한다. 이 때의 家庭之學은 사대부로서 지녀야 할 지식은 물론 특정 집안이 중시하는 家道·家風을 포괄한다. ‘李堦와 李滉’, ‘成守琛과 成渾’, ‘孫仲敷과 李彥迪’, ‘金長生과 金集’의 학문적 수수관계는 조선시대 가학계승의 전형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家學 또는 家道の 계승성을 위해 사대부들이 선택했던 또 다른 방식은 시교서교 및 遺訓·遺言이었다. 시와 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詩教·書教은 在外 부형이 在家 자제를 대상으로 학문을 면려하는 교육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인의 강도에 있어 말[言語]에 견줄 수 없는 글[詩書]의 효용성을 살린 이 교육론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집안을 꼽으라면 풍산류씨 西厓家門을 들 수 있다.¹⁾ 遺訓·遺言은 생시보다는 사후에 방점을 둔 교육론으로써 대부분의 집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家的 영역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는 박세당의 ‘西溪遺戒’가 단연 특별하다.²⁾

1)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의 學風과 그 계승양상」, 『퇴계학과유교문화』55,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2) 김학수, 「西溪遺戒를 통해 본 박세당의 喪禮 인식과 그 파문」, 『한국계보연구』 1, 한국계보연구회, 2010.

이언영이 교자에 있어 詩教書教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견문과 경험을 수록한 「운계한화」를 저술한 것은 완성정가의 특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언영은 20세 되던 1587년(선조20) 현풍곽씨 郭趕의 딸과 혼인하여 朴宗胄(1591-1623)에게 출가한 딸만 두었을 뿐 아들을 낳지 못했다. 이에 그는 49세 되던 1616년 안동권씨 權思性的 딸을 재취로 맞아 斗鎭(1618)·昌鎭(1619)·文鎭(1625)·穎鎭(1630) 등 네 아들을 두게 된다. 장자는 51세, 4자는 63세에 얻었으니, 모두 만득이었다. 부자간 현격한 연령 차이와 환로의 다단함은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그는 만년에 들어 건강이 악화되면서 교자 및 가정경영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써 모색된 것이 「운계한화」의 저술이었다. 「운계한화」를 유훈의 형식을 띤 ‘教子書’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가 젊어서부터 서울과 고향을 왕래하며 고금의 일을 듣고 겪으면서, 일찍이 들은 것을 찾아보고 본 것을 기록하여 뒷날 자손들의 불거리로 삼고자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선 전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여 늘 묘소의香火조차 받들지 못하게 될까 근심하였다. 그러다 다행스럽게도 하늘의 보살핌으로 원하 나가 되던 무오년(1618)에 아들 斗鎭을 얻고, 이듬해 기미년(1619)에 또 아들 遠鎭(뒤에 昌鎭으로 개명했다)을 얻었으니, 필시 선대에서 선을 쌓아 남겨 준 餘慶일 것이다. 다만 이 몸의 고달픈 병마가 날로 심해져서 어찌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온갖 집안일을 모두 기억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감히 이전에 보고 들은 내용을 수습하여 전부 다 기록하며, 위로는 선대의 유적에서부터 아래로는 향간의 자잘한 일까지 모두 다 기록한다.³⁾

‘先代の 遺跡에서 巷間の 자잘한 일까지 모두 다 기록한다’는 자술처럼 「운계한화」는 철저히 이언영의 주관적 문견과 경험에 바탕했고, ‘자손교육’이라는 목적 의식 또한 뚜렷했지만 그는 기록의 객관화를 위해 애를 썼고, 찬

3)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卷3. 이하 『浣亭集』의 국역 원고는 『국역완정선생문집』(이지락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17)을 참조.

양이 아닌 鑑戒에 비중을 두었다. 「운계한화」가 지니는 태생적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17세기 초반 영남지역 양반가의 治家論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열람의 편의성과 사실 파악의 명확성을 위해 선대의 諱字를 직서했다고 한 것에서는 史筆의 적용성을 엿볼 수 있고, ‘지난 일을 알려서 다가올 일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표현에서는 ‘鑑誠意識’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선조의 諱字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쓴 것은 후손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어느 선조의 사적인지 분명히 알게 하고 싶어서다. 선생이나 어른의 이름 역시 모두 그대로 쓴 것은 무슨 호가 어느 공의 이름인지 알게 하고 싶어서다. ... 꿈으로 점을 친 이야기는 길흉을 미루어 알려는 것이고, 지은 글 따위는 잊어버리는 것을 대비해서다. 제사의 일을 나열한 것은 선조를 받들고 먼 조상을 추모하게 하고 싶어서고, 율곡 일을 밝힌 것은 지난 일을 알려서 다가올 일을 알게 하고 싶어서다.⁴⁾

이언영이 설정했던 교자 및 치가의 강령은 孝親忠君敬長睦族⁵⁾ 즉 ‘孝忠敬和’에 집약되어 있다. 家世의 연혁을 수편으로 삼은 것은 「운계한화」의 저술의 기본 정신이 ‘孝’에 주안점이 있었음을 뜻한다. 효에 대한 강조는 조선 후기 유학자의 보편적 인식인 바, 그 자체로 특별할 것은 없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孝는 忠의 전제, 즉 ‘移孝爲忠’으로의 전환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家的 가치에 한정할 수 없다.

孝의 대상은 父祖이고, 그 실천의 주체는 자손이다. 조선중기까지만 해도 ‘子孫’ 개념은 ‘親孫’에 한정되지 않고 內外孫을 포괄했다. 재산 상속에서의 均分은 輪迴奉祀라는 의무의 균등으로 나타났고, 외손봉사의 성행은 부계친 중심의 가계 계승의식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언영이 살던 시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禮法에 있어 하나의 과도기였다. 그 과도

4) 李彥英, <雲溪閑話>, 『浣亭集』卷3.

5) 李彥英, <雲溪閑話>, 『浣亭集』卷3, “大要不出於孝親忠君敬長睦族之外”

성은 宗法 질서의 확산 속에 부계친 중심의 친족 구조가 강조되고, 그 결과로서 배타적 家門意識의 형성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있었던 것 만큼은 분명했다. 이언영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주체적 행위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자손의식’은 동시대의 일반성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資質論’에 바탕한 내외손 ‘均對論’으로 규범화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후손은 귀하고 외손은 쓸 데 없다고 하는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후손과 외손에 매이지 않고 훌륭한가 훌륭한지 않은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⁶⁾

이처럼 이언영은 내외손 차등론[貴虛論]에 반대한다. 그 기준은 명확하다. 그 자질이 ‘훌륭한가 훌륭한지 않는가[賢不賢]’에 따라 논할 따름이지 姓孫[本孫]은 귀하고 외손은 쓸 데 없다고 하는 세론에 대한 거부감에서는 ‘貴實意識’이 감지된다. 이 대목에서 그는 鄭崑壽鄭述 형제를 어진 외손의 모범으로 설정한다. 동시에 그는 고조 李惟康의 외손 가운데 報本意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거명하여 그 사례를 논열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전에 西川君 鄭崑壽 공과 한강 선생 형제께서 외증조할아버지 李鐵墩 공의 묘소에서 함께 묘사를 지내면서 정성과 예법을 극진히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만약 먼 조상을 추모하는 지극한 정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였겠는가.

고조할아버지의 한 딸이 상주 山陽縣 卞宗範에게 시집갔다. 卞生의 한 딸이 서울에 사는 尹澄에게 시집갔다. 윤생이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尹克新이다. 이분이 아들 둘을 두었는데, 尹擘과 尹嶸이며, 딸은 朴思恭에게 시집갔다. 박사공의 아들이 朴慶新이다. 윤극신은 護送官이 되었을 적에 神金과

6) 李彦英, <雲溪閑話>, 『浣亭集』 卷3.

鬱於谷의 두 묘소로 와서 묘사를 지냈는데,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하였다. … 이후 기미년(1619) 사이에 박경신은 경상도 감사가 되었는데, 한 번도 와서 성묘한 적이 없었다. 아! 똑같은 우리 고조할아버지의 외후손인데, 그 행적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만약 윤돈이 감사였다면 이렇게 하기를 달가워 하였겠는가. 또 辛慶晉과 宋英壽는 모두 元帥公의 외손으로, 다 성주 묘사를 지냈는데, 역시 竹内の 묘소에 와서 참배하지 않았다. 만약 죽어서도 지각이 있다면 훗날 지하에서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⁷⁾

이 대목에서 「운계한화」가 教子 및 治家 목적에서 남긴 저술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즉, 이언영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그 시대의 분위기와는 사뭇 결을 달리하는 「子孫論」을 설과함으로써 그것의 기풍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혜적 권리성과 시혜적 의무성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관행에 부합했다.⁸⁾

이언영에 의해 주입된 완성정가의 家庭學의 또 다른 요체는 受恩에 대한 感謝와 믿음[信]이다. 그것은 자신의 사무치는 경험에 바탕하는 것이었기에 꾸밈의 흔적이 적다. 이언영은 17세 때인 1584년(선조17) 京第에서 어머니 경주최씨 상을 당했다. 당시 아버지 이등림은 인동현감 재직 중인 탓에 治喪은 오롯이 장자이자 독자였던 이언영의 몫이 되었다. 예기치 못하게 大故를 당한 어린 상주를 도와 치상을 마무리해 준 사람은 생원 趙珪이었다.⁹⁾

갑신년(1584)에 어머니께서 서울의 집에서 운명하실 적에 아버지께서는 仁同縣監으로 나가 계셨다. 나도 열일곱의 나이로 갑자기 당한 상에 어떻게

7) 李彦英, <雲溪閑話>, 『浣亭集』 卷3.

8) 분가 외손의 闕禮에 대한 섭섭함에 못지 않게 자신들의 외가 또는 외선조에 대한 향념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 「운계한화」에 흐르는 정서의 본질이다. 상당한 지면을 외가 경주최씨의 세계 서술에 할애하여 추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이런 의식의 발로이다 (李彦英, <雲溪閑話>, 『浣亭集』 卷3).

9) 조현은 趙鶴壽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찰방을 지낸 趙壽崑을 계후했다. 1567년 생원시에 입격했고, 좌랑 벼슬을 지냈다. 尹善道許穆洪宇遠과 함께 「南人四先生」으로 일컬어진 趙綱은 그의 손자이다. 후일 조경이 文衡 재직시에 이언영의 묘갈명을 찬술하면서 양가의 世誼를 특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趙綱, <左副承旨李公墓碣銘并序>, 『龍洲遺稿』 卷15).

대처해야 할 줄 몰랐다. 이웃에 살던 上舍 趙鉉 어른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으니, 입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땀하였겠는가. 그 뒤로 내가 병조 좌랑 재임 중에 조 어른께서 갑자기 고인이 되었다. 내가 발인하는 날 楊州의 樓院에서 곡하며 전송하였지만 애당초 뻗속 깊이 새겨 둔 감사의 마음을 만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하였기에 오직 ‘잊지 않겠다.[不忘]’는 두 글자만 가슴속에 담아둘 뿐이다.¹⁰⁾

이언영이 조현의 성의를 이처럼 사무치게 특필했던 것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의 분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受恩’에 대한 이 ‘不忘’의 旨訣이 완석정가의 뚜렷한 가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은 실천이 담보되었기 때문이다.¹¹⁾

이언영은 조현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하지 못했다고 슬회하고 있지만 조현의 손자 趙綱(1586-1669)의 기억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조경이 기억하는 이언영은 수시로 조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喪事가 있을 때면 예를 결하지 않는 방정한 사람이었다.

내가 어려서 영남의 娥林縣(居昌) 객사에서 증 참판공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적에 儒冠을 쓴 어떤 손님이 찾아와 할아버지를 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맞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머물다가 바로 떠났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사람은 바로 내 친구 아들이다. 품행이 방정하고 학문이 깊으니,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고 하였다. 자라서 생각해 보니, 바로 성주의 李公이었다. 10여 년 뒤 병조 좌랑에 임명된 공이 또 서울로 와서 娥林縣에

10) 李彦英, <雲溪閑話>, 『浣亭集』 卷3.

11) 당시의 지식인이라면 이런 인식의 바탕이 되는 고사를 숙지하고 있었던 바, 완석정가의 독특한 가풍으로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이언영보다 한 세대 후배격으로 湖西[德山]에서 활동했던 趙克善의 경우에도 자신의 일기에서 동일한 어구를 행신의 준칙으로 삼고 있다(趙克善, <辛亥12月25日(1611)>, 『忍齋日錄』, “事親孝, 事君忠, 事師敬, 人生於三事之如一. 我有德於人, 不可不忘, 人有德於我, 不可忘也, 故識之.”). 중요한 것은 독특성이 아니라 共知의 格言을 치가에 적용하려는 의도성이다.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를 찾아와 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할아버지 상여를 진송하기 위하여 도성 밖 30리까지 멀리 나와 진송하였다. 또 10여 년이 지나 사간원 정언에 임명된 공이 성주에서 서울로 들어와 나의 선친 빈소에 조문하고 매우 슬피 곡하였으니, 이는 보통 사람과 다른 독실한 세의를 알게 해 준다.¹²⁾

조경이 이언영의 묘갈명에서 ‘自家’와 ‘浣石亭家’의 교계를 ‘3代世誼’로 표현한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不忘’의 지결은 인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뢰와 연결되어 더욱 강고한 지적 자산으로 온축되었다. 아버지 이등립과 집안 사람 李守謙 사이의 계집종 양도 일화는 믿음의 대인관이 압축되어 있고, 武人の 길을 택한 어릴적 친구와의 변치 않은 우정을 특기한 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우고 있다.

한편 이언영은 「운계한화」에서 風水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일종의 반성의식과 연동되어 있다. 사실 이언영은 동시대의 여느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占術 및 풍수에 경도된 측면이 있었고,¹³⁾ 실제 1601~1602년 무렵에는 부모 묘소의 이장을 위해 당대의 명지관 性智 및 杜思忠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갖은 노력에도 이들과의 만

12) 李彥英, <雲溪閑話>, 『浣亭集』 卷3.

13)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풍수 배격론자로서 李元翼과 李植을 꼽고 있는데, 이는 양반사회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던 풍수의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丁若鏞, <風水集議>, 『與猶堂全書』, “吾東先輩, 如 梧里 李政丞 澤堂 李學士, 皆峻斥風水. 梧里先兆在 衿川縣, 族葬也. 有喪, 不求新, 而 其家壽考綿遠. 澤堂之孫, 又 榮達崇高, 至今不衰, 其遺訓多至理明論, 宜採入此間也.”). 이원익의 경우 유훈을 통해 풍수에 구애되지 말고 人情에 따라 族葬을 치를 것을 당부한 바 있고, 이 유훈은 대대로 준수되었다. (李元翼, <書示子孫>, 『梧里集』 補遺, “父而子子而孫, 一氣相傳 生欲同一家, 死欲同一塋, 此天理人情之至. 世之人拘於風水, 多有不下於先讜而卜於他所者, 假使風水之說爲可信, 棄祖先而求福, 神必不祐 況本茫昧無據者乎. 父子祖孫骸骨異山死而有知, 寧不悲涼. 吾祖先葬於 衿川之 梧里洞, 已累代矣. 其爲山周雖不甚大, 南北丘壟亦多, 倘不拘風水而鱗比用之, 何患乎無其地. 吾死之後, 子子孫孫, 藏此書遵依無廢也.”)

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풍수의 현혹성을 자각하면서 풍수배격을 치가의 준칙으로 삼게 된다.

당시에 性智와 杜思忠은 모두 풍수에 밝다고 이름이 났는데, 이 친구들과 사귀며 사이 좋게 지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무개는 좋은 명당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신축년(1601)과 임인년(1602) 사이에 부모님 묘소를 이장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 묘소 자리에 물이 난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이 친구들을 찾아가 ‘우리들이 서로 친한데, 어찌 말을 한 뒤에 마음을 분명히 알겠는가. 이제 친구의 입장으로 감히 청하네. 다행히도 허락해 준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는가’ 라고 하고는, 서너 번 이상을 간절히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아낼 방도가 전혀 없었다. 풍수가 사람을 현혹함이 심하구나. 칭찬 것도 현혹이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현혹이지만, 귀로 듣고 입으로 전수하며 남들이 혹 알까 염려되어 끝까지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현혹 중에 현혹이다.¹⁴⁾

그가 풍수 배격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張顯光의 입장을 부연한 것은 易學에 정통했던 석학의 권위를 빌어 입론의 정당성을 펴고자 했던 것으로 읽힌다.

당시에 모두 성지와 두사충에게 현혹되어 한가지로 달려갔는데, 여헌 장선생만은 시종 보고도 보지 못한 듯이 하였으며, 金宗孝라는 친구도 ‘성지와 두사충이 있고 난 뒤에 세상에는 가난하거나 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했는데, 이는 명확한 의론이다.

풍수의 현혹으로부터의 벗어남은 내외의 분의보다는 ‘賢不賢’의 논리에 바탕을 두었던 자손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린 의식이 ‘實’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풍수의 경우, 일련의 회개 과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가적 착근성 또한 더욱 강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언영이 「운계한화」를 통해 경계코자 했던 또 다른 덕목은 懲忿과 平心

14)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 卷3.

에 바탕한 處官의 자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사환 시절에 겪었던 수모를 공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식을 향한 ‘치부의 드러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의 언설은 솔직, 단호하다. 이언영은 1629년(인조7) 밀양부사 재직시 朴春連이라는 백성의 무고를 입게 되었다. 치하의 백성이 지방관의 조처에 불만을 품고 어사에게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즉시 사직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벼슬에 연연하는 듯한 구설에도 불구하고 거관하지 않았던 것은 변방의 전쟁 경보가 끊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개인적 潔身보다는 관료적 책무의식을 가르치고 있다.

수난은 계속된다. 역시 밀양부사 재직 시절인 1630년(인조8) 직속 상관인 경상도 순찰사가 洪霧에서 李溟(1570-1648)으로 교체되었다. 이명은 생원시 同榜으로 성균관에서 함께 유학한 인연이 있어 후대하리라 믿었지만 그 기대는 순찰사가 밀양의 吏房과 刑房을 잡아다가 혹독하게 매질하는 단계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모욕감과 책임감을 견디다 못한 이언영은 병을 핑계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명의 석연찮은 和解 제안에 설득되어 유임하게 된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얼마 후 이명은 순시차 영남루에 이르러 徙民 업무와 관련하여 서리들을 혹독하게 매질하여 뼈가 부러지는 사태를 유발시켰다. 이에 이언영은 극심한 자괴감 속에 관직을 떠나게 된다. 여기서의 교훈은 융통성이다. 그는 이명에 대해 동방의 緣이 있었음에도 그 情誼를 억제했고, 원칙에 사로잡혀 상관을 맞이하는 절차에도 유연성을 기하지 못했다. 두 차례에 걸친 수모는 그것의 미흡함에서 기인하는 慘事였다.

李子淵(李溟)이 순시 중에 嶺南樓에 도착하여 또 徙民의 일 때문에 마구 성을 내며 서리들을 혹독하게 매질하여 모두 뼈가 부러졌다. 내가 외람되어 태수가 되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는가. 이에 호연히 떠날 작정을 하였다. 아! 인간의 득실에는 모두 운수가 그 속에 들어 있다. 접때 만약 이자연과 술자리에서 회포를 나누었거나 맞

이하는 즘음에 친구의 우정을 나누었다면 내가 하나의 일을 빌미로 돌아오지는 못하였을 것이다.¹⁵⁾

그는 자신의 애꿎은 사례를 통해 자손들에게 權經의 조화, 응변의 유연성을 가르치면서도 인간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明哲保身の 기회를 만들어준 이명에게 감사하고 있다. 「운계한화」가 개인의 닳두리가 아니라 교자용임을 환기할 때, 그의 서술에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한 의도성이 진하게 묻어난다.

白髮의 처지로 공문서 처리에 골몰하는 것이 어찌 몹시 서글프지 않았겠는가. 오직 이번 일을 경계로 삼아 영원히 벼슬을 버리고 雲山과 水竹의 경계에서 한가로이 노닌다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은 모두 이자연 덕분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기록하여 훗날 후손들의 불거리로 삼는다.¹⁶⁾

1633년(인조11) 선산도호부사 시절 순찰사 鄭世矩(1585-1635)로부터 받은 수모 일화는 청렴의 일상화가 위난의 良藥이 됨을 잘 보여준다. 순찰사 정세구가 선산 경내에 들어선 것은 1633년 8월 29일이었다. 정세구의 고약한 使酒癖은 이미 정평을 얻은 터라 주변 사람들은 선산 고을 및 지방관의 수난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공무 수행에 있어 조금의 흠결도 없다고 자신했던 도호부사 이언영 뿐이었다.

이언영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세구는 사무의 遲晚을 핑계로 형리와 좌수에게 亂杖을 가하는가 하면 조정에 보고하여 수령을 파직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이언영은 관직을 버리고 환가했고, 정세구는 狀啓를 두 번이나 고쳐 쓰면서 이언영을 파직시키는데 부심했다. 주된 사유는 ‘나이가 많고 政務가 졸렬하다’거나 ‘政令이 해이하고 처사가 疎闊하며 집이 멀지 않아 폐단이 많다’는 것이었다.

15)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 卷3.

16)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 卷3.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순찰사와 동석했던 旅軒門下의 동문 金揚善의 변호는 위기를 모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나이가 많다는 것 외에 이언영을 둘러싼 어떤 혐의에도 수궁하지 않았다. 만약 자신에게 장계를 代草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겠다고 했다.

그 어리석음은 미치지 못하고 그 맑음은 氷蘖과 같습니다.¹⁷⁾

이 한 마디는 정세구를 무색하게 했고, 이언영을 향한 誣啓 또한 여기서 멎었다. 김양선의 변호론이 同門 구제리는 진영 논리에 바탕한 행동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실상에 대한 호도이다. 극형을 감수하고 감사와 군주를 상대로 誣辨할만큼 김양선에게 이언영이 절대적인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언영은 「운계한화」에서 정세구와 관련된 통한의 기록을 하나 더 남겼다. 이언영은 1614년(광해군6) 「甲寅封事」를 올렸다가 극형의 위기에 처한 鄭蘊을 극력 구호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세구의 논평은 嘲笑 그 자체였다.

영남에 이런 끈은 선비가 있을 줄 생각지도 못하였다. 다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다.¹⁸⁾

이언영을 ‘말로만 절개와 강상을 외치는 자’로 매도하며 무참하게 짓밟는 말이었다. 이에 대한 이언영의 소회는 참혹함으로 가득하다.

내가 원래 鄭世矩에게 인정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은 내 나이가 많아서 생긴 일이니, 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¹⁹⁾

이언영은 정세구의 조소를 ‘逢變’으로 절하하고, 모든 것을 ‘나이탓’으로

17)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 卷3.

18)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 卷3.

19)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 卷3.

돌리고 있지만 그는 분명 조소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본질, 즉 ‘殺身の 용단을 내리지 못한 부끄러움’의 의미를 직감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언영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식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물음일 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이언영의 대답은 생각보다 모호하다. 그렇다면 그가 굳이 이 일화를 수록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도 행하지 못한 결단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은 결코 강요할 수도 없지만 권장할 수도 없는 의무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납득 가능한 주저함이다.

한편 이언영은 1633년(인조11) 밀양 考試官 시절의 일화를 통해서 공무 수행에 있어 사정에 얽매이지 않았던 공정한 자세를 드러내고자 했다. 당시 시관은 이언영·조반·최괴였고, 이 시험에는 처족인 곽씨 집안의 자제들이 대거 응시했다. 처질 곽집의 아들 곽홍장과 조카 곽홍연이 그들이었고, 모두 낙방했다. 시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 현풍 처가에 들렀을 때 곽집의 禮待는 이언영의 심적 부담을 한결 덜어주었다.

현풍의 처가로 돌아오니, 처질 郭■이 나에게 ‘이번 시관이 거행한 것은 公道로 사람을 취하였습니다. 저의 아들 弘章과 조카 弘■도 모두 이번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사심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고 했다.²⁰⁾

이언영의 공정한 업무 처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사정에 얽매이기 쉬운 科擧의 유혹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언영은 自讚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일처리보다 스스로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보장책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공무 집행의 엄정함에서 오는 약간의 서운함은 私的인 情誼의 발현으로써 메워졌다. 1635년(인조13) 작은 처남 郭再定의 손자 郭弘祉가 문과에 합격하여 주서에 임명되었다. 처족인 동시에 자신의 문인이었던 곽홍지의 등과는

20) 李彦英, <雲溪閒話>, 『浣亭集』卷3.

양가의 큰 기쁨이었다. 이에 이언영은 기념할만한 일을 기획했고, 마침내 곽홍지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곽씨 집안의 세업인 滄洲亭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본디 창주정은 이언영의 처부 곽간의 정자였다. 창주정과 함께 寬洞亭을 소유했던 곽간은 생전의 분재 때 창주정을 손자 郭隣에게, 관동정을 사위 이언영에게 상속했다. 그 후 곽린은 관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이언영에게 부탁하여 두 정자를 맞바꾸어 소유하게 된 것이다. 처질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수용하기는 했지만 장인 곽간의 의중을 잘 알고 있었던 이언영의 마음은 늘 불편했던 것 같다. 이에 이언영은 곽홍지의 登科를 숙채 상환의 호기로 삼아 창주정을 흔쾌히 양도했던 것이다.

滄洲亭의 절경은 현풍에서 가장 빼어나니, 안개와 구름 낀 모래톱 위를 새가 나는 풍경은 참으로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감춘 것이다. 예전 우리 장인께서 이곳에 경영하여 늙어서 소요할 장소로 삼았다. 이어서 너의 부친에게 물려주고 寬洞亭은 나에게 주셨다. 너의 부친은 창주정이 率禮村에서 멀어서 한가로이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나에게 맞바꾼 뒤 문서를 작성하자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래서 창주정이 나의 소유로 되었으나 너의 집안에 물려주고 싶어 한 것은 바로 장인어른의 뜻이었다. ... 이에 구름과 모래톱이 빼어난 곳을 너에게 주고 너로 하여금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여 장인어른의 처음 뜻을 이루려고 한다.²¹⁾

그가 양도한 것은 물적 자산인 몇 칸의 정자가 아니라 곽씨의 가업이자 가법이 응집된 정신적 유산이었던 것이다. 시관 업무의 엄정성과 창주정 양도의 寬仁性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엄정함을 지켜야 할 곳과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할 곳을 분별하는 ‘公嚴私寬’의 교육론이었다.

21) 李彥英, <與郭子久弘社>, 『浣亭集』 卷2.

3. 師門論 : ‘旅軒認識’을 중심으로

이언영은 9세에 부친 李鄧林에게서 『十八史略』을 배우면서 배움의 길에 접어들었고, 그후 徐思遠·李守謙·鄭述·張顯光 등 모두 4명의 外傳를 섬기게 된다.²²⁾ 이등림이 정구의 절친한 벗이고, 서사원이 한강문인이었고 보면, 그는

22) 비록 사제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柳雲龍·柳成龍·金誠一·曹好益·金宇顯·金宇宏·郭再祐·金富弼·趙穆·金功 등과의 직간접적인 교제 또한 이언영의 학문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浣亭集』이 이언영의 모든 언행의 문자적 자취를 담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대목을 빠트리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정인홍과의 사제관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필은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와우출판사, 2005) 142~152쪽에서 李彦英·朴光先·朴宗胄를 來庵門人[정인홍문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북으로 활동한 박광선은 이언영의 사돈으로 인조반정 이후 원찬된 인물이고, 박종주는 그의 아들이자 이언영의 사위로 인조반정과 동시에 복주되는 참화를 겪었다. 물론 이언영은 폐모살계에 항거했던 정온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여 중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浣亭集』은 정인홍과 절교한 기사만 수록했고, 절교의 전제가 되는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李彦英, 『年譜』 <丁未(1607)>, 『浣亭集』, “書絕鄭仁弘。時仁弘名位日隆, 權移朝廷, 人皆媮阿趨附, 而先生的見其心術之微, 故深惡而痛絕之。由是大爲所忤, 書逸。”) 이것은 정인홍과 의절하고 정치적으로 맞섬음에도 정인홍과의 사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던 정온의 『桐溪集』과는 자못 대비된다(鄭蘊, 『年譜』 <己亥(1599)>, 『桐溪集』, “六月。往鄆山。初鄭仁弘受業南冥之門, 負山林重望, 號爲來菴, 接引後進, 繩墨嚴截。先生往來其門, 仁弘亦敬重焉。”; 鄭蘊, <與鄭仁弘書>, 『桐溪集』卷2.; 鄭蘊, <癸亥辭疏>, 『桐溪集』卷3, “臣於仁弘 雖無執卷受業之事, 而師生之分則定已久矣。”)。 이런 이유에서 연구자들은 『浣亭集』의 편집 의도에 일정한 의구심을 갖는다. 김익재는 「來庵 鄭仁弘의 現實對應과 그 門人集團의 師承意識」(경상대 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내암문인의 사승관계 왜곡 양상을 1)언급회피형, 2)온건편하형, 3)적극편하형으로 구분하였는데, 『浣亭集』은 온건편하형에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김익재는 李昌巖의 「浣亭行狀」에 표현된 ‘李爾瞻과 대립하여 정온의 주장에 동조하다가 삭탈관작 당했으며 인조반정 때 다시 성균관 직장으로 벼슬을 받았다’는 기록에 대해 『조선왕조실록』(광해군 6년 2월 23일; 광해군 6년 2월 28일)을 논거로 하여 반박하고 있다. 즉, 이언영이 정온의 甲寅封事와 관련하여 삭탈관작 당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정온의 주장에 찬동했다는 「행장」의 기록은 과장된 것이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浣亭集』이 가지는 편집 및 기술상의 약간의 윤색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이언영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후손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장 등 전기류는 아들 대인 17세기에 이루어졌고, 유문의 편차 및 간행은 6대손 李鉉(1752~1827), 李鏞(1763~1815) 대인 19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정인홍에 대한 인식은 인조

寒旅學人이 될 수밖에 없는 학문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언영이 한강문하에 입문한 것은 21세 때인 1588년(선조21)이지만 그에 게 정구는 매우 친숙한 학자였다.²³⁾ 이미 이언영은 8세 때인 1575년(선조8)에 아버지와 함께 廣一巖에서 정구를 뵈었고, 1584년(선조17)에는 정구가 이등림의 京第를 방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檜淵草堂에서 입문했을 때 정구는 이언영의 확고한 지조와 강직한 풍도를 인정했고, 鹿峯精舍에서 이루어진 李潤雨李宗文과의 강학은 정구의 학문 노정을 답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²⁴⁾

이후 약 32년 동안 지속된 두 사제의 긴밀한 학연은²⁵⁾ 이언영이 한강문하의 고제로 인식되는 실사적 근거가 되어 ‘李彥英=寒岡門人’으로 등식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완정집』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이언영의 심중에 매우 깊이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스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바로 張顯光이며, 그에 대한 경앙심에서 지은 ‘自警說’은 한려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반정 직후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1694년의 갑술환국, 1728년의 戊申亂을 거치면서 강우 남명학파권은 ‘逆鄉’으로 지목되어 정치적으로 더욱 통제를 받았다. 순조 연간에 간행된 『浣亭集』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23) 정구는 벽진이씨의 외손이었으므로 李鄧林彥英 부자와 척분이 있었다.

24) 성주 建甌山 아래 자리한 녹봉정사는 黃俊良이 성주목사 재임[1560-1563] 때 건립하여 선비들의 학업을 권장한 곳으로(黃俊良, <與鹿峯精舍諸生書>, 『錦溪集』 卷4), 이항으로부터도 비상한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李滉, <答黃仲舉>, 『退溪集』 卷20). 정구 또한 이곳에서 황준량으로부터 수학했을만큼 녹봉정사는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 성주 사림의 학문적 구심체로 기능했다.(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安東府使 재임』, 『영남학』 17, 2010)

25) 이후에도 1589년에는 성주에서 정구와 강학했고, 1591년에는 정곤수·정구 형제가 興德洞 京第를 방문했으며, 1596년에는 李天封과 함께 황성으로 가서 강원감사에 재직 중이던 정구를 위로 방문기도 했다. 1615년 초취 현풍싸씨가 사망했을 때는 정구에게 治喪 禮法을 품의했고, 1616년에는 蘆谷精舍로 가서 정구의 지도하에 학문을 講討하였으며, 1617년에는 동문들과 함께 ‘寒岡禮學’의 정수 『五先生禮說』을 교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해 7월 20일 정구가 45일의 일정으로 동래 온정행을 떠났을 때는 전과정에 동행하려 했으나 중간에 사정이 생겨 현풍 水門에서 회귀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때의 아쉬움은 1619년 6월의 온천행에서 정구를 수행한 것으로 상호 보상되었다.

함축하고 있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 인동·칠곡·대구·성주 등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문적 구심점으로 역할한 인물은 정구·장현광이었다. 특히 두 사람은 17세기 이후 ‘寒旅’로 병칭되는 가운데 각기 ‘寒岡學派’와 ‘旅軒學派’를 형성하며 영남의 학문적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켰다. 두 학파의 본거지인 인동과 성주는 지역적으로 인접했다. 두 석학의 특별한 관계는 ‘寒岡旅軒’ 양문 출입자를 양산시켰는데, 이언영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언영이 장현광을 처음 만난 것은 한강문화에 입문하던 1588년(선조21)이었다. 두 사제의 상견은 인동 玉山에서 이루어졌고, 이때 장현광은 이언영을 道義로써 인정하며 家學을 저버리지 않은 재목으로 칭송했다고 한다. 여헌문화에서의 강학이 본격화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였다. 1599년(선조32)의 녹봉정사 강회와 1600년의 石田精舍 강회는 장현광을 정점으로 이루어진 한려학인의 대표적 ‘學筵’으로 기록되었다.

1599년. 3월에 여헌 선생을 모시고 鹿峯精舍에서 강학하였다. 당시 李潤雨·權浹·宋光啓·宋後昌·張乃範·張顯道 등 여러 공이 함께 모였다.²⁶⁾

1600년. 가을에 여헌 선생과 樂齋公을 모시고 石田精舍에서 강의한 뒤에 이어서 낙재공의 伊川 별장으로 향하였다. 여헌 선생과 낙재공이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석전정사로 찾아왔다. 당시 張顯道·張乃範 공과 젊은이 6~7인이 함께 모였다. 이어서 강의와 토론을 마쳤다.²⁷⁾

이언영에게 1613년(광해군5)의 癸丑獄事는 정치적 시련의 시작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장현광과의 사제관계 만큼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해 7월 癸丑獄事 발발 사실을 접한 이언영은 宋光啓와 함께 상경하던 도중 不知巖精舍에 들러 장현광을 뵈고 하루를 묵게 된다. 쉽사리 숙면을 취할

26) 李彦英, 「年譜」 <己亥(1599)>, 『浣亭集』.

27) 李彦英, 「年譜」 <庚子(1600)>, 『浣亭集』.

수 없는 寢席에서 두 사제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눈다.

子路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 여헌 선생이 ‘聖門의 高弟이고 실로 백세의 스승이네’라고 하였다. 선생이 ‘어떻게 아버지를 거부한 나라의 난리에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나라에서 벼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여헌 선생이 손을 잡고 탄식하며 ‘오늘 百世의 스승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네’라고 했다.²⁸⁾

장현광은 ‘百世之師’라는 찬사로써 이언영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문인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 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의미했다. 즉, 장현광은 이언영에게서 의리의식에 바탕한 治者로서의 확고한 存心의 자세를 목도하고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언영이 장현광을 ‘酷慕’하는 이유가 되었다.

1618년 이언영은 장현광의 편지를 받고 흥감해 한다. 재취 부인 안동권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²⁹⁾ 권이 넘은 나이에도 아들을 두지 못한 이언영의 고심처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제 왕복 서한의 사연치고는 너무나 이채롭다. 이는 장현광이 이언영을 몹시 애중했음을 반증한다.

이후에도 사제는 경향을 불문하고 강학 활동을 이어갔다. 1624년(인조2) 장현광이 장령에 징소되어 입경했을 때는 매일 侍講했고, 장현광 또한 입조 때에는 편지를 보내 山林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했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당시 장현광이 호소활동과 관련하여 이언영에게 강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³⁰⁾

28) 李彥英, 「年譜」 <癸丑(1613)>, 『浣亭集』.

29) 李彥英, 「年譜」 <戊午(1618)>, 『浣亭集』.

30) 여헌문인으로 막부에 참여한 인물은 朴敏(진주, 우도의병대장), 李民歲(의성, 좌도의병대장), 金寧(선산, 종사관), 李民奩(의성, 종사관), 裴尙龍(성주, 참결군정), 李之華(대구, 향군주관), 蔣文益(밀양, 12군 의병장), 申適道(의성, 의병장), 趙遵道(청송, 의병장), 김수(선산)를 비롯하여 趙宗岳(영천), 趙宗岱(영천), 張慶遇(인동, 인동의병장), 呂煜(성주), 孫起業(밀양), 鄭好信(영천), 李彥英, 朴宗男 등 10여명에 이른다.

정월에 後金이 平山으로 침입하여 어가가 강화도로 거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행장을 꾸려 호종하러 길을 나섰다. 인동을 들러 여헌 선생을 뵈었다. 號召使 여헌 선생이 선생을 우도의병대장으로 삼자고 청하였는데, 다음날 의병장을 사임하고 金山으로 출발하였다. 여헌 선생이 선생을 보고 기뻐하며 ‘내가 일흔의 나이로, 어려운 시절을 만나 매우 간절한 聖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왔네. 오늘 자네를 만났으니, 하늘이 우리 편을 들어주었네’라고 하셨다.³¹⁾

특히 조정 일각에서 장현광의 號召使로서의 임무 수행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는 단호한 어조로 일침을 가했다.

어떤 朝士가 ‘장여헌이 적을 쳐부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선생은 웃으면서 ‘봉황이 토끼나 꿩을 잡았다는 소리를 어찌 듣겠는가.’라고 답하자 그 사람이 황급히 잘못 물었다고 사과하였다.³²⁾

이런 가운데 1633년(인조11) 선산도호부사 부임시에는 인동 옥산으로 가서 장현광에게 治民의 방도를 물었고,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장현광이 입암 은거를 단행했을 때는 ‘從師’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여헌 선생은 立巖으로 들어가고 桐溪 정공은 支石에서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이 탄식하며 ‘나도 병이 낫거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돌아갈 것입니다.’고 했다.³³⁾

(우인수, 『조선 후기 산림세력연구』, 一潮閣, 2002, 67쪽; 장현광, 『旅軒全書』 「及門諸賢錄」에 수록된 각 문인들의 <略傳>; 『古文書集成』79 -仁同張氏 旅軒宗宅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書目> ①②③)

31) 李彦英, 「年譜」 <丁卯(1627)>, 『浣亭集』.

32) 李彦英, 「年譜」 <丁卯(1627)>, 『浣亭集』.

33) 李彦英, 「年譜」 <丁丑(1637)>, 『浣亭集』.



1627년 경상도호소사
書目_장서각소장(여헌종택기탁)

기를 느낄 적에는 程明道가 가까웠다. 하지만 확고한 지조는 6척의 어린 왕과 백 리의 땅을 맡길 만하였고, 생사준망의 갈림길에서 절개를 빼앗을 수 없었다. 이야말로 참으로 굳자다운 사람이다. ... 얼음 호리병에 담긴 가을 달처럼 맑아서 흠이 없고 눈 속의 소나무와 서리 맞은 대나무처럼 늠름하여 범하기 어려우니, 지금 세상에 이러한 분이 더 있을지 모르겠다.³⁴⁾

이언영의 ‘여헌인식’은 景仰에 매몰된 阿言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和氣와 節操를 겸한 대유의 풍모는 여헌문인을 비롯한 17세기 영남사람 공통의 인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래는 趙任道(1585-1664)의 ‘就正錄’에 드러난 ‘여헌인식’인데 행간에 흐르는 정서는 ‘자경설’과 동일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현광에 대한 존경심은 경앙을 넘어 ‘酷慕’의 단계로 치달았는데, 그런 마음의 표현이 곧 ‘自警說’이었던 것이다. 이언영은 장현광에게서 邵康節程明道の 풍도를 느꼈던 것 같다. 여기에 확고한 지조[志]와 앗을 수 없는 大節이 더해지면서 그는 단호하게 장현광을 한 시대의 ‘君子人’, ‘眞儒’로 평가한다. 이언영은 장현광을 몹시 닮고 싶어했고, ‘自警說’은 그런 갈망의 절실한 표명이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라면 선생은 다 가졌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 선생[張顯光]은 전혀 없었다. 속인들과 친하게 지내며 담소를 나눌 적에는 邵康節과 흡사하였고, 자리에 함께 앉아 화

34) 李彦英, <自警說>, 『浣亭集』 卷4.

지난 경자년(1603)에 任道는 先君子를 모시고 下川里에 있는 사촌 자형인 梧峯 申之梯 공을 방문하였다. 돌아올 때에 길가의 숲속에 亭子가 있었는데, 한 마을의 젊은이와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오봉공도 그의 선친을 모시고 자리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한 大人이 계셨는 바, 얼굴빛이 붉은 것은 물에 담근 듯하고 눈 모양은 단정하여 시선을 함부로 돌림이 없었으며, 말과 행동에 법칙이 있어 조용하고 온화하며 굳세고 깨끗하며 의젓하고 원대하였다. 임도는 濶厚하고 平易한 가운데에 확고하여 뽑을 수 없는 지조가 있으며, 공손하고 겸허한 가운데 엄격하여 범할 수 없는 기상이 있음을 보았다.³⁵⁾

한편 이언영은 ‘자경설’에서 장현광의 학자적 포부 또는 기국을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이것은 장현광의 학통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성대한 三代에 태어나 해나 달과 같은 孔子에게 직접 배우고 杏壇의 교화에 훈도되었다면 顏回의 거문고나 曾點의 비파와 함께 우열을 다투어, 봄날의 생동하는 기운과 읊으며 돌아오는 흥취를 그 옛날에만 독차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³⁶⁾

이언영은 장현광을 孔門의 고제 顏回와 曾點에 비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헌문인 일각에서 제기한 ‘孔孟直承論’에 그 맥락이 닿아 있다. 장현광의 사승에 대해서는 ‘寒岡門人論’, ‘不由師承論’, ‘退溪淵源論’ 등 제 견해가 존재하지만³⁷⁾ 가장 주목할 것은 ‘한강문인론’과 ‘不由師承論’이다. ‘한강문인론’은 盧亨弼·朴以燮·裴尙龍·李道長·呂孝曾·呂焯·趙相禹·具致用 등 한강문인들이 거론했고, 이황⇨정구⇨장현광으로 이어지는 통서 체계를 이룬다. ‘불유사승론’은 ‘道無常師’, ‘學無常師’의 논리를 바탕으로 장현광의 학통을 孔孟과 程朱로 바로 연결시키는 견해로써 장경우·조임도·이주·김응조·김경장 등 혈성 여헌문인

35) 趙任道, <就正錄>, 『澗松集』 別集 卷1.

36) 李彦英, <自警說>, 『浣亭集』 卷4.

37)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들에게서 발론되었다. 결국 ‘불유사승론’은 정구는 물론 5현 및 정몽주와의 학문적 상관성까지 부정함으로써 마침내 1642년(인조20) 장현광의 臨臯書院 并配論爭³⁸⁾ 및 숙종연간에 본격화되는 ‘寒旅是非’³⁹⁾를 과생시키게 된다.

‘불유사승론’은 여헌문인들의 일방적 주장이기보다는 師弟交感에 바탕한 인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예컨대 ‘宇宙要括帖’에서 표현된 ‘第一事業第一人物論’, 統의 본질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心法과 德業의 相契에서 찾은 ‘道統說’의 논리는 장현광의 학통을 ‘孔孟直承論’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⁴⁰⁾ ‘공맹직승론’에 바탕하여 ‘불유사승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한 인물은 張璲이었다. 그는 장현광의 족손으로 조부 및 아버지를 이어 3대(張乃範·慶遇·擧)가 여헌문하에 입문했고, 1637년(인조15) 장현광이 영천 立巖에서 사망할 때는 임종을 지키며 師門의 마지막 旨訣을 들은 애제자였다.⁴¹⁾ 장현광 상례시 그가 지은 제문은 여헌문인 일각에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불유사승론’을 대변할만큼 그 주장에 거침이 없다.

우리 부자께서 타고난 기질은 곧 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가 타고난 기질이며, 우리 부자께서 얻은 바의 理는 복화·신농·황제·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께서 얻은 바의 이이며, 우리 부자께서 고집한 바의 道는 복화·신농·황제·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께서 고집한 바의 도이다. (중략) 우리 부자께서는 혹 존모의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師承과 傳襲의 일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했다. 우리 부자를 모르는 자가 부자를 두고 아무개와 사승이 있고, 아무개를 전승했다고들 하는데, 이는 참으로 子張이 이른바 ‘어찌 배우지 아니 하였는데, 또한 어찌 常師함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⁴²⁾

38) 김학수, 「17세기 초반 永川儒林의 學脈과 張顯光의 臨臯書院 祭享論爭」, 『조선시대 사학보』35, 2005.

39) 김학수, 「17세기 旅軒學派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

40) ‘不由師承論’에 대해서는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62-166쪽 참조.

41) 張顯光, <景遠錄(門人張璲)>, 『旅軒集』續集 卷10, “先生方寢疾, 余有事在京, 先生日間擧來否. 至則執手以訣臨終, 有夫夫敦臨之語.”

42) 『古文書集成』79-仁同 仁同張氏 旅軒宗宅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祭文64(張

‘孔孟直承論’에 초점을 맞출 때, 이언영의 ‘自警說’과 장학의 제문은 대의와 맥락이 동일하다. 시점상으로는 이언영의 주장이 오히려 선행한다. ‘자경설’에 드러난 ‘旅軒認識’은 1637년에 지은 ‘旅軒祭文’에서 반복, 강조된다.

선생은 후대에 외진 海東에서 태어나 예전 성현을 스승으로 삼아 멀리서 학맥을 계승하고도 성과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학문의 한계도 정하지 않아 꾸준히 도를 구하고 독실히 놓지 않았네.⁴³⁾

여기서 그는 장현광의 학통과 관련하여 어떤 군더더기의 말도 보태지 않는다. 鄭夢周·五賢 및 정구의 존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가 말한 옛 성현[古聖賢]이 孔子 또는 孔孟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 대목에서 그는 ‘孔孟直承論者’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고 만다. 이언영은 寒旅의 학문과 풍도를 누구보다 깊이 체득했고, 대외적으로는 ‘寒岡門人’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던 바, ‘自警說’과 ‘旅軒祭文’에 드러난 그의 인식은 장현광의 학통을 ‘不由師承論=孔孟直承論’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매우 신빙할만한 근거가 된다. 『여헌집』의 편찬자들이 장현광의 언행을 기록한 문인들의 記述을 부록에 編次할 때,⁴⁴⁾ 이언영의 ‘자경설’을 축약하여 ‘記聞錄’이란 제목으로 수록한 것도⁴⁵⁾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舉).

43) 李彦英, <祭旅軒先生>, 『浣亭集』 卷5.

44) 『旅軒集』 卷9~卷10에 수록된 言行記述의 찬자는 趙任道(就正錄), 申悅道(拜門錄), 申坡(聞見錄), 張乃範(記聞錄), 李彦英(記聞錄), 朴吉應(記聞錄), 張慶遇(記聞錄), 鄭克後(記聞錄), 金然(景慕錄), 趙遵道(言行日錄), 金慶長(景遠錄), 崔麟(景遠錄), 이주(景遠錄), 張海(景遠錄), 張舉(景遠錄), 權崙(景遠錄), 張應一(趨庭錄) 등 총 17명이다. 이 가운데 趙任道·申悅道·張慶遇·鄭克後·金慶長·이주·權崙은 ‘旅門十賢’으로 일컬어진다.

45) 張顯光, <記聞錄(李彦英)>, 『旅軒集』 卷9.

4. 交遊論 : ‘畿湖學人’을 중심으로

이언영과 완석정가의 정치·학문적 성향은 남인 영남학과[退溪學派]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 해석일 뿐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정인홍과 사승관계는 남명학과의 틀 속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계축옥사를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는 중복으로 분류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유관계로 대표되는 그의 인적 관계망은 영남에 국한되지 않았다. 문과에 장원하여 당상관을 지낸 인물을 당론적 시각에서 ‘남인 영남학과’의 울타리 속에 묶어두려는 것 자체가 의도적 界限의 설정이며, 이런 협착한 시각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언영은 팔거현 石田里에서 출생한 ‘嶺南人’이었지만 京第를 보유했던 집안의 경제적 여건은 유년기 학문 및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그는 서울생활을 통해 ‘都會文化’를 향유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을 확대, 정립할 수 있었다. 여기서의 ‘도회문화’는 준수한 인사들과의 교유관계를 포괄하며, 그 양상은 조선중기의 대표적 ‘學者宰相’으로 일컬어지는 류성룡과 매우 흡사했다.⁴⁶⁾

이등림의 경제는 於義洞·興德洞·仁城府峴⁴⁷⁾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곳에서 이언영은 청소년기를 보내며 자기는 물론 서울 각처에서 학문과 교유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아래는 『浣亭年譜』에서 추출한 그의 서울 생활상인데, 학업 및 교유의 실상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46) 풍산류씨의 경우 류성룡의 5대조 柳洪 대에 이미 京第를 보유하여 서울생활을 유지했고, 이런 흐름은 류성룡 당대까지 지속되었다. 물론 류홍은 출세하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점술가의 말에 따라 중년에는 안동으로 낙향하여 治山에 주력하게 되지만 경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아들 柳子溫의 서울 유학에서 비롯된 경향 二元的 ‘住居經營’은 5대손 류성룡에게까지 이어지면서 풍산류씨의 名門化에 기여하게 된다(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가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계승』, 혜안, 2015, 130-135쪽).

47) 於義洞에서 仁城府峴으로 이주한 때는 1624년이다.

- ① 1581년. 어머니를 따라가서 서울의 於義洞 집에 모여 공암공을 맞이하였다. ... 壯義洞으로 가서 관중추부사 元混을 뵈었다. 원공은 바로 증조할아버지 진사공과 한 해에 입격한 벗이다. 흰 수염과 흰 눈썹에 영지색 옷을 입고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다가, 선생을 보고는 몹시 기뻐하였다. 이어서 기묘년 과거 급제자 발표할 때의 일과 孔巖精舍를 왕래할 때의 일을 말하고, 또 고금의 성쇠와 消長의 변화도 언급하였는데, 安處謹의 禍變에 관한 논의가 더욱 자세하였다.⁴⁸⁾
- ② 1583년. 서울 집에서 지내면서, 여름에 鄭仁涵權壽男 등과 함께 竹箭洞에서 공부하였다. ... 1584년. 서울의 집에 있었다. 한강 선생이 찾아왔다. 당시 한강 선생이 동북현감으로서 서울로 들어왔다. ... 1591년. 西厓 류선생과 藥圃 정선생이 興德洞으로 찾아왔다. 鄭栢谷(鄭崑壽)과 한강 선생이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찾아왔다. ... 1592년. 4월에 興德洞 집에서 지내는 중에 섬나라 왜인들이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양친을 모시고 경상좌도로 피난하였다.⁴⁹⁾

장동에 거주하던 증조 李麟孫의 벗 元混으로부터는 선대의 세의와 근고의 역사를 들었고, 죽전동에 가서는 사우들과 학업에 열중했으며, 柳成龍·鄭琢·鄭崑壽·鄭述 등 동향의 선배들과 회합한 곳도 서울이었다. 竹箭洞에서 동학한 鄭仁涵은 鄭仁弘의 종제였다. 이렇듯 이언영은 서울에서의 학문과 교류를 통해 도성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양질의 지식문화 정보를 수용하며 사대부 지식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점차 학파와 정파를 초월한 교유망을 형성해 나갔고, 등과를 통한 사회활동, 특히 인조반정 이후 관료적 위상의 강화는 교유범위의 탄력적 확대로 이어졌다. 『완정집』에서 확인되는 서인 기호학과 계열 인사는 李尙吉·朴東善·李恒福·李惟侃·李廷龜·趙希逸·金尙憲·申欽·金長生·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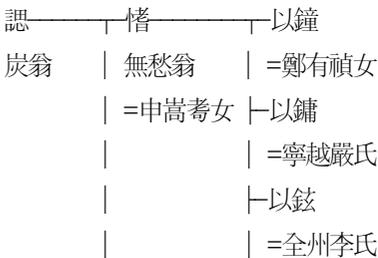
48) 李彦英, 「年譜」 <辛巳(1581)>, 『浣亭集』.

49) 李彦英, 「年譜」 <癸未(1583)>, <甲申(1584)>, <辛卯(1591)>, <壬辰(1592)>, 『浣亭集』.

植 등 17세기 정계·학계 및 문단을 이끈 명사들이었다. 이외 李元翼·蔡裕後·許穆·李敏求 등 근기남인계 학자·관료 또한 그의 교유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인과의 우호적 관계성의 단적인 사례는 혼맥에서 찾을 수 있다. 이언영은 본실[재취]에서 4자[斗鎭·昌鎭·文鎭·潁鎭]를 두었고, 소실에게서 3자[重鎭·景鎭·徽鎭]를 두었는데, 소실의 큰아들 重鎭이 金長生의 庶婿가 된 것이다. 비록 서자녀간의 혼인이기는 했지만 이 또한 엄연한 ‘婚事’였고, 이로써 이언영과 김장생은 사돈관계를 맺게 된다. 비록 당시는 黨內婚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과·정과의 틀을 넘어선 이 통혼이 갖는 이례성만큼은 부인할 수 없고,50) 이는 서인계와의 긴밀한 교계에 바탕하지 않고는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이었다.51)

<그림1> 안동권씨 權認 자손도



50) 유사한 예로 鄭經世와 宋浚吉의 翁婿 관계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혼인을 功西 견제를 위한 대안세력[淸西 계열의 沙溪 그룹+ 영남남인 계열의 愚伏 그룹]의 결연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경세의 송준길 擇婿는 영남과 호서의 교류라는 긍정적 측면과 영남내 서인[노론]세력의 유입을 통한 정쟁의 격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지만 전자에 주안점을 둔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51) 李重鎭은 부인 光山金氏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海準·海湜]을 두었는데, 이해준은 1682년 증광 문과에 합격했고, 차자 해식의 아들 柱泰는 1705년 생원을 거쳐 1725년 증광 문과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파로서는 상당히 현달했음을 알 수 있는데, ‘沙溪外孫’으로서의 입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卜女 金元燮[善山人:文大諫]
 | 卜女 李鼎興[全州人:文佐郎]
 | 卜女 成益昌[昌寧人]
 | 卜女 鄭重元[草溪人:參奉:桐溪曾孫]
 | 卜女 李柱天[星州人:翰林:浣石亭曾孫]
 卜惟————— 卜以鎭
 | 旅翁 卜以鎭
 | =宋時烈女 卜以鎭[有懷堂]
 | | =李翊夏女
 | 卜女 李寧錫[全州人]
 卜女 尹拯[坡平人:明齋]
 卜女 尹義濟[南原人:白湖子]
 卜女 宋道顯[恩津人]

이언영과 김장생의 사돈관계에 내재된 파격적 요소는 증손 李柱天 대에 와서는 보다 확장성을 지니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주천[차자 昌鎭의 손자]은 權楮의 딸과 혼인했는데, 권기는 17세기 호서산림의 한 사람인 權認의 장자였다. 이 혼인은 완석정가가 영남의 선산김씨[金就器家]·초계정씨[鄭蘊家]와의 세의를 강화함은 물론 호서 기호학과 및 근기남인의 명가 은진송씨[宋時烈家], 파평윤씨[尹拯家], 남원윤씨[尹鑄家]와 간접적인 척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권시의 손자로 숙종~영조연간 남인의 증진 權以鎭(1668-1734)과는 4촌의 척분이 있었다. 이런 연고로 인해 이주천은 권이진이 동래부사에 재직하던 1709년 관사를 방문하여 교계를 다졌고, 1714년(숙종40) 권이진은 직접 성주를 찾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의를 보였던 것이다.⁵²⁾

이처럼 이언영의 교유관계는 서인계 전반을 포괄하면서도 후일 소론을 표

52) 김학수, 「‘有懷堂’의 가계와 古文獻」, 『道山學報』11, 도산학술연구원, 2008.

방하는 계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朴東善·李惟侃·申欽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³⁾ 朴東善과의 교유는 1614년(광해군6) 이언영이 정운을 구호하다 금고를 당해 吾道宗村에서 두문불출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정치적 외풍에서 기인한 당시 그의 심경과 처지를 『완정연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였다. 당시 남도의 사대부들은 선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많이 찾아와 위로하였다. 선생은 죄를 지어 禁錮당한 처지로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바깥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다. 寒岡 선생이 소식을 듣고 여러 번 편지로 위로하며 자취를 감추지 말라고 하였다.⁵⁴⁾

이렇듯 험겨운 근신의 시기를 보내던 그를 찾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 사람이 안동부사에 재직하고 있던 박동선이었다.

가을에 처사의 동네 찾아보니	秋日來尋處士閭
고아한 그 풍도 못 본 지 얼마였나	芝眉相阻幾居諸
시간원에서의 풍채 사람들 다 생각해도	薇垣風采人皆想
곧은 도 품고 문 닫은들 어떠랴	直道何妨閉戶居 ⁵⁵⁾

박동선은 ‘處士’, ‘風采’, ‘直道’라는 詩語를 통해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위로를 아끼지 않았고, 이언영은 ‘直道’라는 표현에 대해서 만큼은 ‘不堪當’의 겸양을 표했다.

서포 박동선 사수의 시에 화운하다 [和朴士粹東善號西浦]

53) 朴東善은 숙종연간 朴世采·南九萬·尹拯과 함께 少論의 영수로 부상하는 朴世堂의 조부이고, 李惟侃은 李景稷·李景奭의 아버지로 이 집안 역시 소론의 핵심세력으로 인식되었으며, 申欽은 앞에서 언급한 소론 영수 朴世采의 외조부이다.

54) 李彦英, 「年譜」 <甲寅(1614)>, 『浣亭集』.

55) 李彦英, 「年譜」 <甲寅(1614)>, 『浣亭集』.

길고 수많은 대나무에 가린 한 초가 脩竹千竿一草廬
 깊숙이 감춤은 팔리고 싶지 않아서네 深藏非欲待沽諸
 은근한 정 담은 부사의 아름다운 시구 慇懃明府瓊琚句
 곧은 도라는 턱없는 이름 자처하지 못하네 直道虛名未敢居⁵⁶⁾

박동선과 이언영은 현실의식에 바탕한 ‘義理’로써 투합하고 있을 뿐⁵⁷⁾ 그들 사이에 서인과 남인의 불편한 간극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당쟁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 당파적 시각을 투사하면 事象이 왜곡 또는 변질되는 이유이다.

한편 이언영은 1624년(인조2) 정월 보름 李惟侃(1550-1634)의 집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지게 된다. 사마시 동방 睦長欽·閔汝任 등의 외직 부임을 전별하는 자리였고, 역시 동방인 서울[漢城府] 芹洞 소재 이유간의 집에서 회동한 것이다.

정월 대보름에 동년에 입격한 여러 공과 함께 李惟侃 공의 집에 모였다. 이 당시 林川郡守로 나가는 睦長欽, 나주목사로 나가는 閔汝任, 衿川郡守로 나가는 沈統 등을 전별하였다. 이공이 그의 아들 景稷에게 참석한 사람의 이름을 벽에 적으라고 시키고는, 이어서 여러 동년에게 시를 칭하였다. 선생도 절구한 수를 지었다. 문집에 있다.⁵⁸⁾

56) 李彦英, <和朴士粹東善號西浦>, 『浣亭集』 卷1.

57) 박동선은 16세기 사림파에서 명성이 높았던 朴紹의 손자로 선조비 懿仁王后와는 4촌간이다. 안동부사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폐비론이 일어나자 ‘廢母庭請’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 근교에 은거했다. ‘廢母庭請’ 불참시에는 堂吏들이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참여자 명단에 대신 이름을 써넣는 일까지 벌여졌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고 仁穆大妃에 대한 신절을 지켰고, 인조반정 이후 중용되었다. 아들 朴珪의 인조반정 참여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尹拯, <左參贊 贈領議政錦川府院君朴公神道碑銘>, 『明齋遺稿』 卷41, “甲寅. 出安東府使, 秩滿歸, 時廢母后之議已發, 爾瞻等脅百官庭請, 公杜門不出堂, 吏有愍公得罪, 欲爲之地者, 竊就堂簿書進, 公即露狀自言吏妄也, 某實不進, 聞者吐舌, 凶徒論以遠竄, 事幾不測, 適遯遁得已, 自是絕迹京輦, 屏居幾外.”)

58) 李彦英, 「年譜」 <甲子(1624)>, 『浣亭集』.

芹洞 이유간의 집은 17세기 초반 서울의 대표적 ‘社交空間’이었다. 이유간은 閔純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花潭學統을 계승하였지만 그의 교유망은 학문적으로는 花潭·退溪·南冥·牛溪·栗谷學派, 정치적으로는 동인[남인]·서인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유간의 인적 관계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世舊錄』이다. 『세구록』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⁵⁹⁾ 이유간이 교유한 사람은 크게 1)親姻戚, 2)同里人, 3)學友, 4)宦友 등으로 구분된다.

이언영은 사마 동방으로서 『世舊錄』에 이름이 올라 있다. 기록상 그가 이유간의 집을 방문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이유간의 집은 ‘社交名所’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학과와 정파에 구애되지 않았던 이언영의 소통적 ‘관료의식’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은 申欽과의 관계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626년(인조4)에 설행된 별시문과 ‘부정의혹’이었다. 당시 우의정이었던 申欽은 試官의 수장으로 서 과거를 주재하여 동년 8월 16인의 합격자를 선정,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부 합격자와 시관[申欽·趙璞·陸叙欽]의 인척적 상관성이었다. 신희의 아들 申翊全, 손자 申冕, 조박의 아들 趙全素, 목서흠의 질서 趙衍의 합격에⁶⁰⁾ 대해 대시간 李植, 사헌부 집의 尹知敬이 이를 문제 삼아 시관의 처벌과 파방을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다.⁶¹⁾ 이에 인조는 신희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비등하는 여론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9) 이근호, 「17세기 전반 京華士族의 人的關係網 -『世舊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8,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10.2.

60) 趙克善, <丙寅9月2日(1626)>, 『治谷日錄』, “今番別試殿試榜出之後, 人言籍籍, 盖右相申欽爲命官其子翊全其孫冕參榜, 趙璞爲試官, 其子全素爲之, 陸叙欽爲試官, 其兄女婿趙衍爲之. 且二更後罷場, 收卷官起後, 追封五十丈, 三啓請考, 自內擲奸, 則月廊有穿壁處 其他巷議, 不可盡信. 李大司諫李植·執義尹知敬, 倡論罷榜, 再昨蒙允. 諸試官罷職, 而趙璞方被拿囚, 物論甚快之. 然此可見世道之日趨汙下也.”

61) <인조4년 8월 28일(丁卯)>, 『인조실록』.

대체로 申欽은 응시하는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여 담당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신으로서 좁은 도량이기에는 하나 사정을 부렸다고 의심한다면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신희은 어려서부터 名節을 가다듬어 조금도 흠이 없었는데, 이렇게 백발의 나이에 와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아! 한 번 잘못 처신함으로써 싸잡아서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으니, 그 지극한 통환은 너무나 애석하지 않은가.⁶²⁾

물론 사간원 정언 金光燦 등은 파방의 불가함을 주장하며 신희을 변호했지만 신희의 待罪⁶³⁾와 呈辭는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언영은 신희에게 편지를 보내 위로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그것은 깊은 ‘신회’의 표명이었고, 한 인간에 대한 평소의 관찰과 체험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서남당쟁이 가열되던 인조 초반의 정국동향을 고려할 때, ‘과거부정의혹’은 남인의 대서인 공격의 호기가 될 수 있었지만 이언영의 언행은 그것의 대적점을 향하고 있었다.

지난날 再試를 시행하는 자리에서 저는 삼가 스스로 단속하는 대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장력은 잇는 채 단지 즐거이 남의 장점을 취하여, 사소한 문자라도 적절하지 아닌지나 높은지 낮은지를 가릴 부분이 있으면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반드시 거듭 아랫사람에게 물은 뒤에 黑白을 가렸습니다. 저도 감히 끝까지 침묵할 수 없어서 경박하게 臆見으로 대답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근신하셨던 대감께서 어떻게 오늘날 거듭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사로움[私]’이라는 한 글자를 대감에게 적용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비방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마음에 담아 둘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 자주 전하여 훌륭한 분은 곤욕을 당하고, 병을 핑계대고 물러나 강가 집으로 숨은 것이 대인에게는 괜찮지만 나라의 불행은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⁶⁴⁾

62) <인조4년 8월 28일(丁卯)>, 『인조실록』.

63) <인조4년 9월 1일(庚午)>, 『인조실록』.

64) 李彦英, <與申右台敬叔欽號象村>, 『浣亭集』 卷2.

특히, 편지 말미의 언급에서는 심기 상통했던 두 인물의 교분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당론이 정국을 휩쓸던 시기에도 정파를 초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언영이 실증해주고 있고, 조선후기 정치사는 이런 장면에 대한 세밀한 수렴 위에서 입론될 때 더욱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참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하니, 대감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저의 방자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한번 크게 웃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⁶⁵⁾

이언영이 신흙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표명한 배경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신흙의 사승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易學 등 학문 경향에 있어서는 花潭學風의 영향이 짙고,⁶⁶⁾ ‘공부방식’에서는 남명학풍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⁷⁾ 유년기에 그를 양육했던 외조 宋麟壽가 조식의 지우 宋麟壽란 점도 후자에 대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즉, 이언영은 신흙에게 내재된 ‘南冥學風’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고, 당론에 비교적 온건했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졌을 수 있다.

무엇보다 편지를 보낸 1626년(인조4) 9월 경은 신흙이 ‘寒岡神道碑銘’ 찬술에 열중하던 시기였다.⁶⁸⁾ 물론 ‘한강신도비명’은 두 차례의 개찬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한강문인과 신흙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당시만해도 이언영에게 신흙은 師門의 ‘身後文字’를 찬술하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65) 李彥英, <與申右台敬叔欽號象村>, 『浣亭集』卷2.

66) 신병주, 「화담학과 근기사림의 사상」, 앞의 책, 69~76쪽.; 박희병, 「신흙의 학문과 사상」, 『한국의 생태사상』, 185~186쪽 참조.

67) 박병련, 「박세당 ‘虛文’ 비판의 정치사상적 의미와 정치적 행동의 특성」, 『서계 박세당 연구』, 집문당, 2006, 101~102쪽 참조.

68) 김학수, 「‘寒岡(鄭述)神道碑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42, 조선시대사학회, 2007.

결국 이언영은 남명학풍에 대한 공감성, 당론에 치우치지 않았던 정치적 온건성, 정구의 ‘신후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진 한강학파와의 친연성으로 인해 신희에 대해 특별한 ‘교분의식’을 가졌던 것 같다.

이언영의 차자 昌鎭은 ‘浣石亭行狀’에서 아버지의 정치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 당파에 치우치는 습성이 사람의 心術을 무너뜨리는 것을 더욱 미워하며, 늘 ‘나라를 망치는 것은 黨論이다.’고 했다. 평생 입으로 동서 봉당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만일 權貴에 아부하여 같다고 무리 지으며 다르다고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몹시 미워하며 통렬히 끊어 버렸다.⁶⁹⁾

망국의 폐단인 당론에 대한 거부감, 바로 이것이 신희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5. 學問論 : ‘眞知實踐’과 ‘變化氣質論’

18세기 영남의 학자였던 金垕(1739-1816)은 ‘浣亭李公遺墟碑銘’에서 이언영의 학문적 노맥을 아래와 같이 언명했다. 한려학인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당대의 실상을 고려한 적실한 평가라 하겠다.

의리는 『춘추』에서 익히고	義講春秋
학문은 한강과 여헌 따랐네	學從寒旅 ⁷⁰⁾

역시 18세기 영남의 한강학통을 이은 崔興璧의 ‘浣石亭認識’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다. 그는 이언영을 직절한 풍도를 지닌 관료로만 한정하는 것에 반

69) 李彦英, <浣亭行狀>, 『浣亭集』 卷7.

70) 金垕, <浣亭李公遺墟碑銘>, 『龜窩集』 卷10.

대한다. 한려를 착실히 계승하여 本源工夫에 철저했던 ‘학인’이 이언영의 참 모습이라는 뜻이다.

선생은 학문에 있어 스승께서 전하신 실마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선생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정에 벼슬하면서 밝게 드러난 풍도만으로 일체 淸名과 直節에 귀착시키고, 본원 자리의 진실한 공부가 결국 이렇게 훌륭한 경지에 이른 점은 소략히 처리하고 언급하지 않았으니, 또한 선생을 알팍하게 안 것이다.⁷¹⁾

나아가 그는 이언영의 사위 李元禎의 ‘浣石亭祭文’을 인용하여 ‘敬義’를 ‘浣石亭學問’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언영에게서 ‘南冥學風’을 간파한 이원정의 인식을 가장 적실한 ‘浣石亭論’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남명학과의 친연성이 크게 약화된 19세기 초반의 평론치고는 당대의 실상에 매우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歸巖 李元禎만이 선생의 영전에 올린 제문에서	
신심을 다스릴 적에는	治之身心者
경과 의를 아울러 지니고	敬義而夾持
사업에 운용할 적에는	措諸事業者
직과 방을 용으로 삼았네	直方而爲用

라고 하였으니, 이 두 구절만이 선생의 실재를 잘 말하였다. 이는 참으로 선생을 알아본 분이니, 어찌 韓愈의 李漢처럼 잘 관찰하고 잘 말하였다고 하지 않겠는가.⁷²⁾

한편 최흥벽은 이언영의 한려학 계승 양상을 양측적으로 서술하는 세밀함과 친절함을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정구에게서는 禮學을, 장현광으로부터는 宇宙論과 出處를 배웠다는 뜻인데, 이 또한 實事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71) 崔興璧, <浣石亭先生李公遺事>, 『蠹窩集』 卷12.

72) 李彦英, <遺事(崔興璧撰)>, 『浣石亭集』 卷7.

아! 선생은 천품이 이미 아름답고 또 두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하며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성취한 바가 매우 많았다. 天理의 節文과 심술의 危微에서 求仁의 단서와 精義의 공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늘 답아 두어 반드시 귀착되는 뜻을 지극히 하였으니, 이는 정 선생에게 얻은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이다. 천도의 消長과 성인의 出處로부터 翔鳳의 빛남과 春風의 부드러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답아 두어 반드시 그 거동대로 하고 싶어 하였으니, 이는 장 선생에게 얻은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이다.⁷³⁾

이언영을 바라보는 최흥벽의 예리한 시선은 이어진다. ‘眞知實踐’과 ‘變化氣質’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眞知實踐’이 관료적 行道의 전제였다면, ‘變化氣質’은 학자적 자기 성찰과 단속에 바탕한 求道の 행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문할 적에는 孝友로써 근본을 삼고 忠信으로써 주장을 삼아 참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을 신조로 삼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치를 따름으로 절도를 삼아 더욱 기질의 변화에 힘을 쏟았다.⁷⁴⁾

이언영은 ‘寒旅’라는 대유를 만나 양질의 가르침을 입었고, 사환 과정에서는 그것의 적용과 실천에 노력한 것은 분명하지만 학자로서의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 못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에게서는 학자적 ‘자기충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만큼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種西瓜說’은 그 실체가 된다.

이 논설은 58세 되던 1625년(인조3) 작품인데, 당시는 좌부승지, 용양위 부호군을 지낸 뒤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윽고 내려진 대구부사 임명에도 불응하며 비교적 한가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種西瓜說’에는 이언영의 학문 및 학자관이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이언영은 끊임없는 성찰과 교육[學

73) 李彦英, <遺事(崔興璧撰)>, 『浣亭集』 卷7.

74) 李彦英, <遺事(崔興璧撰)>, 『浣亭集』 卷7.

첩]을 통한 기질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⁷⁵⁾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하여 학문하는 방도를 알 수 있다. 사람의 품성은 모두 같아도 기질은 달라서 어둡거나 밝거나 강하거나 약한 차이가 있다. 이른바 강하다 밝다는 것은 접때의 무성한 것이요, 어둡다 약하다는 것은 접때의 이른바 시든 것이다. 이른바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접때의 이른바 북돋운 것이다.⁷⁶⁾

즉, 그는 ‘尊德性’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道問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존덕성’과 ‘도문학’ 양변 공부에 대한 강조는 朱子は 물론 ‘寒岡工夫論’의 주안점이기도 했다.⁷⁷⁾ 노둔했던 曾子를 孔門의 傳道者로 새삼 강조한 것은 성찰을 통해 결점을 부단하게 고치고 보완하는 誠篤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위함이었다.

배우고 그만두지 않는[不措] 공부를 더하여 人道の 당연한 도리를 다하면 어리석은 자는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유약한 자는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을 만하구나, 夫子의 “그 성공에 미처서는 한가지다.”라는 말씀이여, 聖門의 학자 중에 총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매우 많았건만 마침내 그 도를 전한 이는 바로 노둔한 曾參이었고 보면, 사람이 배우면서 誠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⁷⁸⁾

75) 기질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예는 조식에게서 찾을 수 있다. 청년기의 조식은 豪氣가 강했고, 『左傳』이나 柳宗元의 문장을 애독하여 문장은 매우 기고했다. 이런 가운데 1525년(중종20) 사우들과 山寺에서 『性理大全』을 읽다가 許衡의 말을 접하고는 각성하여 實學[聖賢之學]에 전념하게 되었다.(朴綱, <南冥先生言行總錄>, 『無悶堂集』 卷5. ; 朴綱, 『南冥先生年譜』 <乙酉1525>, 『無悶堂集』 卷5.)

76) 李彦英, <種西瓜說>, 『浣亭集』 卷4.

77) 張興孝, <南行錄>, 『敬堂集』 卷1, “(敬堂)問朱陸角立之由, (寒岡)先生曰, 朱夫子以尊德性道問學兩邊工夫, 未嘗偏廢爲主, 象山之學, 偏主尊德性一邊工夫, 此乃所以角立也.”

78) 李彦英, <種西瓜說>, 『浣亭集』 卷4.

이언영이 논설에서 강조한 ‘기질변화론’은 학자적 適化을 위한 학인의 ‘自己改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대상은 자신을 넘어 동시대의 타인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

6. 맺음말

이언영의 삶의 자취는 質實함과 예리함 그리고 현실의 界限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유연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敎子論을 통해 본 그의 治家論은 外樣이 아닌 실질의 강조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雲溪閒話』의 저술에 史筆을 취용한 것은 기록의 엄정·객관성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자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허탄과 현혹의 배격, 不忘의 謝恩論이었다. 그의 處世를 질실함으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언영은 한려 양문을 출입하였지만 한강문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종전의 인식은 외피였을 뿐 실제적으로는 여헌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강고하였음을 밝혔다. 그는 장현광을 酷慕하면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고, ‘寒旅葛藤’의 핵심 요소인 張顯光의 淵源과 관련하여 ‘孔孟直承論’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만큼 장현광을 예리하면서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음을 의미했고, 동시에 이것은 그가 여문고제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실마리가 된다.

중앙과 지방을 망라했던 그의 사권의 폭과 방식은 寅協의 교유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통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의 학자·관료와는 달리 학과·정파라는 그 시대의 진영논리에 함몰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영남과 기호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궤적의 여운은 강렬하다.

이언영은 정구에게서 禮學을, 장현광으로부터는 宇宙論과 出處를 배웠는데, 그의 학문관은 ‘眞知實踐’과 ‘變化氣質’로 압축된다. 전자가 관료적 行道의 전제였다면, 후자는 치열한 자기 성찰과 단속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언영의 학문은 道學 그 자체보다는 관료적 행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짙었는데, 그가 학자인양 행세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원전 및 자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李彥英 『浣亭集』; 이지락 옮김, 『국역완정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7; 趙綱, 『龍洲遺稿』; 趙克善, 『忍齋日錄』; 丁若鏞, 『與猶堂全書』; 李元翼, 『梧里集』; 鄭蘊, 『桐溪集』; 黃俊良, 『錦溪集』; 趙任道, 『澗松集』; 張顯光, 『旅軒集』; 尹拯, 『明齋遺稿』; 趙克善, 『治谷日錄』; 朴綱, 『無悶堂集』; 張興孝, 『敬堂集』; 崔興璧, 『蠹窩集』; 金垞, 『龜窩集』; 『古文書集成』79 -仁同張氏 旅軒宗宅篇-,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 논저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신병주, 『남명학과와 화담학과 연구』, 일지사, 2000.
이상필, 『남명학과와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2005
김학수, 「17세기 초반 永川儒林의 學脈과 張顯光의 臨臯書院 祭享論爭」, 『조선시대사학보』35, 2005.
박병연, 「박세당 ‘虛文’ 비판의 정치사상적 의미와 정치적 행동의 특성」, 『세계 박세당 연구』, 집문당, 2006.
김학수, 「寒岡(鄭述)神道碑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42, 조선시대사학회, 2007.
김익재, 「來庵 鄭仁弘의 現實對應과 그 門人集團의 師承意識」,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有懷堂’의 가계와 古文獻」, 『道山學報』11, 도산학술연구원, 2008.
이근호, 「17세기 전반 京華士族의 人的關係網- 『世舊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8,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10.
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安東府使 재임」, 『영남학』 17, 2010.
김학수, 『한국계보연구』 1, 「西溪遺戒를 통해 본 박세당의 喪禮 인식과 그 파문

- 」, 한국계보연구회, 2010.
-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 김학수, 「17세기 旅軒學派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
-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의 學風과 그 계승양상」, 『퇴계학과유교문화』55,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가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계승』, 혜안, 2015.

Abstract

The Home Management and Theory of Intercourse and Learning of Yi Eonyeong

-The Succession and Application of Hanryeo Academic
Traditions-

Kim, Hak-su

This research examines the life and the cognitive framework of Yi Eonyeong (李彦英, 1568-1639) on the aspects of home management and intercourse of study. The 17th century was the era of change in the School of Yeongnam Province. The expansion of the School of Hanryeo, which had Jeong Gu and Jang Hyeongwang as the prime masters, had become an opportunity to transfer its leadership to Indong and Seongju that had hitherto been dominated by Andong and Yean. Their academic tradition, emphasizing the practice (實) with the coast of the Nakdong River as the center, it created and spread its own unique texture while maintaining its universality of the School of Yeongnam Province.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School of Hanryeo does not refer to the equation between the School of Yeongnam Province and the School of Hanryeo in the early 17th century. This schematic layout is an obstacle to figure out the internal diversity of the School of Yeongnam Province. As the 4 subjects in Confusion School (孔門四科) represents, similarities in learning environment do not result in uniformity of the

directions and parts of learning. Yi Eonyeong was taught steadily under the instruction of Hanryeo, but his cognizance of Hanryeo was different from others in the same school. Although he was politically and academically divided into the Southerners of School of Yeongnam Province, his network of acquaintance was beyond this category. This research, which follows closely looking at the trajectory of his life, means a theo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 study on person, that was not free from the logic of political and academic camps.

key words :

Yi Eonyeong (李彦英), Man of learning under Hanryeo (寒旅學人), Jeong Gu (鄭述), Jang Hyeongwang (張顯光), Theory of home management (治家論), Theory of teaching child (教子論), Theory of disciple (師門論), Theory of intercourse (交遊論), Theory of learning (學問論)